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3/20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7:39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요 14:16-17, 26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 16:13

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5:4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그 영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그것은 이 영이 그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들의 숨이다. 이 절의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뉴마(pneuma)’로서 숨, 영, 바람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절은 “거룩한 숨을 받으십시오.”라고 번역될 수 있다. 부활하시던 날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거룩한 숨으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내쉬셨다.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본질적인 영은 우리가 숨 쉬기 위한 우리의 숨이다. (그 영, 6 장, 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그 영은 요한복음 7 장 39 절에서 예정되고, 요한복음 14 장 16 절과 17 절, 26 절, 15 장 26 절, 16 장 7 절과 8 절, 13 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2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사도행전 2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누가복음 24 장 49 절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참조 요 14:17 각주 1). 사도행전 2 장의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그 영은 제자들의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능력으로

임하셨다(행 1:8).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숨인 그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에게 불어 넣어지셨다.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나누어 주셨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땅에서 자라나 새롭고 생생한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듯이,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주님께서 아버지의 체현이시듯이, 그 영은 그분의 실재화이시며 실재이시다.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것은 바로 그 영으로서이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들로 흘러나오시는 것도 바로 그 영으로서이다(요 7:38-39).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의 보혜사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시어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16-17).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사실 수 있으시고, 제자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19).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고, 제자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20, 15:4-5).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23). 주님께서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실재가 되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6:13-16).(요 20:22 각주 1)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거룩함은 우리가 산출할 수 없는 것이다. ... 오직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고, 오직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기억하라. 그 영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속자, 구주, 목자, 생명, 생명 공급이시다.

그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소유한다. ...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삼일 하나님은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이시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인 그분은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입하실 것이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실 것이다. (욥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120-1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2권, 성경에 있는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계시, 8-9 장; 1969년, 2권, 성경에 있는 생명에 관한 중요한 계시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 3 장

3/21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29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고후 3:6, 17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 3:2

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요 6:63a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요 10:10b

10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 2:21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105:1

1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라.

시 116:2

2 그분께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기에 나는 내 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프뉴마(pneuma)’에는 ‘숨’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어린양과 포도나무에 대하여 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0 장 22 절에서 말씀과 하나님과 어린양과 포도나무이신 그분께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숨이신 것을 본다. 한편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셨고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는 숨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숨을 우리 안으로 들이쉬므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 심프슨(A. B. Simpson)은 그리스도를 들이쉬는 체험에 대해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찬송들 가운데 한 곡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주여 내게 성령 부어 마시게 가르치며”(찬송가 210 장).(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34 장, 3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체가 되셨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을 거치심으로써 우리가 들이쉴 수 있는 거룩한 숨이 되셨다.

이 신성한 과정의 단계들을 본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합당하고도 철저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 장 1 절과 14 절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체가 되셨다. 29 절에서 우리는 육체가 되신 이 말씀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보았다. 한편으로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는 어린양이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생명을 분배하는 나무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어린양-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 장에 따르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포도나무의 생활이다. 궁극적으로, 어린양-나무는 거룩한 숨이 되신다. ...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과 어린양과 나무와 숨이 되신다. 말씀은 표현을 위해 있고, 어린양은 구속을 위해 있으며, 나무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있고, 숨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 있다.

우리는 숨 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 의심할 바 없이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죽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숨 쉬면 산다. 우리가 여러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결코 숨 쉬는 것은 졸업할 수 없다. 자신이 아는 것이 많고 성숙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숨 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생활을 위해 거룩한 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한다(살전 5:17).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식사하고 여러 번 마신다고 해도, 누구도 끊임없이 먹고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끊임없이 숨 쉬고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것과 같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될 수 있는가? ... 이렇게 되게 하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우리는 이렇게 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사는 것은 숨 쉬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숨 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 영을 호흡한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호흡해야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호흡해야 한다. ... 온종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불러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나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말할 때조차도 주님을 부른다는 것과 깊은 속에서 그분을 호흡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34 장, 319-3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는 두 나무, 6장; 하나님을 누리는 길, 13-14 장*

3/22 수요일

아침의 누림

출 17:6

6 이제 내가 거기 호렘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고후 1:9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7:37-38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계 22:1, 17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반석에서 나온 물(출 17:6)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이다. 부활은 어떤 것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또한 죽음을 통과한 어떤 것에서 솟아 나오는 생명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17 장의 생수는 반석에서 나왔다. ... 성경에서 이 반석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반석은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 후에 솟아 나왔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주요 단계들이 성취된 후에야 이 물이 흘러나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석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해 준다(고전 10:4).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을 포함한다. 반석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셨고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 가운데서 사셔야 했다.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 장 6 절은 심오한 절이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포함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2 장, 518-5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은 흐르시는 가운데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거치셨고, 그런 다음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수는 부활 안에 있다.

생명수에는 많은 성분과 많은 요소가 있다. 우리는 이 생명수를 합당한 방식으로 마실 때마다 그 물 안에 있는 모든 요소와 물질을 공급받는다. 이 요소들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작용한다. ... 체험에서 우리는 모든 성분을 포함하여 흐르는 이 물의 내적인 작용을 누린다. 우리 안에서 흐르는 물은 육체 되심이라는 요소가 없는 물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포함하는 물이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이다. 이 물이 바로 부활이고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물을 이기거나 정복할 수 없다.

부활은 바로 삼일 하나님, 곧 근원이신 아버지와 과정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흐름이신 그 영이다. 오늘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있다. 이 물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거쳤다. 이 물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을 마실수록 더욱더 우리의 천연적인 상태에서 나오고, 더욱더 역경과 어려움에 당당히 승리한다. 이 생명수는 세상과 온갖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출한다. 생명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에 참여함으로 부활을 누린다.

생명수이신 생명 주시는 영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신다(계 22:1). 한편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한편으로,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또한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다준다. 우리는 이 물을 마실 때 능력뿐 아니라 권위도

얻는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수에 굴복한다.

그 영은 맞으신 그리스도, 갈라진 반석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른다(출 17:6, 고전 10:4). 이 흐름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포함한다. ... 이 물을 마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체험하고 누린다.

생명수이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빌 3:10)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심과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을 지니시고 부활 안에서 흐르신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체험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맛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2 장, 522-523, 526-5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3, 45 장; 유티니스 리 전집, 1971 년, 4 권, 성경에 있는 중심 계시, 3 장; 1971 년, 4 권, 주님의 회복의 핵심 방면들, 1 장

3/23 목요일아침의 누림**고전 10:3-4**

3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거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전 14:19-20

19 그러나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로 일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생각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 형제님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골 3:4, 10-11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거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거나, 스कु디아인이거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반석으로서 믿는 이들을 따르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물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 장 4 절에 있는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출 17:6)를 가리키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물이 되시는 그 영(요 7:37-39, 고전 12:13)을 예표한다. 살아 있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맞으셨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그분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그 영을 상징한다(요 7:37-39).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신약의 결론,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서신서들, 310 장, 68-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임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만 알 뿐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런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런 다음, 믿는 이들은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성경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가르치는 윤리책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피상적이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아니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한 이상을 더욱더 온전히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이상을 얻는다면, 이것이 경배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먹고 마실 때,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 우리의 음식과 음료이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신다. ...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음식이 소화되고 동화될 때, 이렇게 소화되고 동화된 음식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의 조성체이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 모두에서 사실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신부는 그 영과 하나된다. 요한계시록 22 장 17 절에 따르면, 그 영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임을 본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실 것이다. ... 식사 예법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자주 먹고 마시는 것을 방해한다. ... 나는 독일에서 공식 국민 초청 만찬에 참석했던 어떤 중국 대사에 관해 들었다. 그 중국 대사는 합당한 에티켓과 식사 예법에 너무 주의를 기울였던 까닭에 음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식탁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식기를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 ... 아이들은 이와 다르다. 나의 어린 손녀가 우리를 방문할 때, 나의 아내는 종종 손녀에게 먹을 것을 준다. 나의 손녀는 자연스럽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음식을 누린다. 그 아이가 먹는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형식에 덜 주의를 기울이고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요한복음 4 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참된 경배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드린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것이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였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그녀의

존재 안으로 들이마심으로써 실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생수이신 그 영께서 사마리아 여인 안으로 주입되셨다. 하나님은 참된 경배를 찾고 계시며,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참된 경배를 얻으셨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4 장, 546-5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년, 1 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림, 2 장

3/24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6:35, 50-51, 57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50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27, 33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출 16:14-15

14 이슬이 스러진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잘고 둥근 것이 있었는데, 마치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잘았다.

15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서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나?”라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떡입니다.

요 6:58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존재 전체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적시시고, 우리의 감정에 침투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차지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몸 안으로 받아들인 음식은 소화되고 동화되어 우리 몸의 조성 성분이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점차 자라고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결국에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신진대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후 3:18). 그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사람을 입고 교회생활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게 된다. 이러한 교회생활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몸의 실지적인 생활이다. 여기에는 교리나 인간 조직이 없다. 오직 생명의 성장을

위하시는 그리스도만 계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3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을 회복함, 5장, 495-49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6 장 27 절에서 주님은 “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씩어 없어지는 양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여러분은 영원한 양식,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 영원한 양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요한복음 6 장은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보여 주는 유일한 장이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35, 48 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고(41, 50-51, 58 절), 하나님의 떡이시며(33 절), 살아 있는 떡이시고(51 절), 참떡이시다(32 절). ...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분은 하늘의 떡이시다. 하나님의 떡이신 그분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게서 보내지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 곧 ‘조에(zoe)’를 가진 떡이시다. ...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 즉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 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즉 살아 있음을 가리킨다. 참떡이신 그리스도는 진리 또는 실재의 떡이시다.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실재이시다. ...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질적인 음식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의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생명에 관한 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방식으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전해온 이유이다. 이 메시지들에서의 부담은 성경이 단지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과 생명 공급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계명들과 규례들에 관한 가르침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생명과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음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대해야 한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음식은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 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18장, 285-287 쪽, 19장, 2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3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과 그 성취, 8장

3/25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2:7, 1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3:20

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계 22:14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음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창 2:16

16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수 5:10-12

10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에 여리고평원에서 유월절을 지냈다.

11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무교 과자와 붉은 곡식을 먹었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만나가 없었고, 그들은 그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고전 1:30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전 10:17

17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교리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요 6:35, 48)으로 제시하셨다. … 신약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은 ‘먹는 교회들’이었다. … 우리는 사도행전이 먹는 것의 원칙과 실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먹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인 것을 소화하고 동화하여 우리의 요소와 조성 성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9 장 4 절과 5 절에서 주님께서 믿는 이들을 그분 자신의 지체들로 여기신 사실은, 믿는 이들이 주 예수님을 그들 자신 안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분을 소화하고 동화하여 그들의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게 했음을 계시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2 년, 3 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을 회복함, 5 장, 488-4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 생명나무(2:7)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17 절), 그분의 풍성이 가득한 잔치에서 그분과 함께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3:20). … 요한계시록 2 장 7 절의 생명나무는 우리를 다시 창세기 2 장으로 향하게 하는데, 창세기 2 장은 먹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관련된 장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2 장 17 절의 감추어진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가리킨다(출 16:14-16, 31). 게다가 요한계시록

3 장 20 절에서 언급하듯이, 주님의 풍성이 가득한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은 것을 가리킨다(수 5:10-12).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서 자신을 생명나무, 만나, 좋은 땅의 소산물로 제시하신 순서가 구약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한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서 주님은 … 그분을 먹는 긍정적인 반면만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또한 부정적인 방면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누리는 데서 믿는 이들을 빛나가게 하는 가르침들을 폭로하신다. 2 장 14 절과 15 절에서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있는 그곳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게 하여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에게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2 장 20 절을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그 여자는 여신언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한다.” 죽이는 문자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손상한다.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붙든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는 대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 교회생활에서 우선적인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룩하게 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거룩하신 분인 주님을 먹어서,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행 3:14, 고전 1:30).

주님은 합당한 음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는 문제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이 음식은 생명나무와 만나와 좋은 땅의 소산물로 예표되는데, 이 모두는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들이다. 이 계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상실되었지만, 주님은 오셔서 이기는 이들을 부르셨다. 곧 그분을 먹는 데로 돌아옴으로써 종교적인 교리를 이길 사람들을 부르셨다. ... 우리는 처음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곧 우리에게 음식으로 공급되시는 주님을 먹는 데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1년, 4권, 주님의 회복의 핵심 방면들, 1장, 646-648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3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을 회복함, 2, 5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1년, 4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 5-6장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3-14장

찬송: 509 (英) 하나의 강과 한 나무 (中:384)

1 하나의 강과 한 나무 이는 곧 낙원의 특색
음식과 생수 공급해 사람을 살게 해

(후렴)

사람의 양식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안에 왔네
지금은 주님 그 영 되어 무한한 공급해.

2 나무는 생명 양식 된 영광의 그리스도니
하나님 풍성 누릴 때 만족함 얻게 돼

3 강물은 우리 영 안에 공급이 되려 오신 영
우리가 풍성 채울 때 거룩함 이뤄져

4 내 생명 되신 주 예수 그 영 돼 내 영에 사내
하나님과 나 연합해 주 형상 나타내

5 나 주를 높이기 위해 무한한 영 순종하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은혜로 영원히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18-3:20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장, 4장

2 단계-주제별 연구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1:4

*The Issue of Christ Being Glorified by the
Father with the Divine Glory, chs. 1-2*

churchinnyc.org/bible-study

3/26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 16:13-16

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6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후 3:17-18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